

1930년대 전반기 이효석 소설의 마르크시즘 차용 양상

이미림*

|| 차례 ||

- I. 머리말
- II. 주의자의 붉은 혁명과 사랑
- III. 불온한 혁명과 찬란한 모더니티
- IV. 콜론타이즘과 혁명의 위선
- V. 결론

【국문초록】

본고는 이효석 문학의 마르크시즘과 콜론타이즘 전유 및 차용 양상과 소설에 투영된 1930년대 전반기 사회적 분위기를 고찰하였다. 동반자문학으로 출발한 이효석은 전 세계를 휩쓸었던 마르크시즘을 경성제대 영문과 재학시 일본인교수의 교육과 유진오와의 친분을 통해 공유하며 사상적 영향을 받았다. 192,30년대 식민지 지식청년에게 마르크스 사상은 독립운동의 수단일 뿐만 아니라 제국과 식민지를 해체하는 탈식민주의적 관점에서 수용되었다. 카프에 가입하지는 않았지만 동반자작가로 호칭되는 그의 초기문학은 식민지조선의 비참함과 비루함을 그렸으며, 정치적 망명지 해삼위를 환희와 감격, 행복의 마르크시즘이 실현된 유토피아로 재현했다. 1920년대 중반부터 조선공산당을 탄압하기 시작했고 1931년 카프 제1차 검거 사건으로 가혹하고 살벌한 무단정치가 자행된 시점에서 사상과 이념에서 탈피하여 성과 자연, 세태로 함몰되는 전향광정이 형성되었다. 주의자와 맑스 레이디, 앵겔스 걸 등의 작중인물이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1931년부터 1934년까지 발표된 이효석 소설은 이 시기가 뼈라 뿌리는 시대, 과업의 시대, 붉은

* 강릉원주대 국문학과 교수

혁명의 시대일 뿐만 아니라 황금광시대, 연애시대, 붉은 사랑의 시대임을 밝히고 있다. 유사단어의 나열, 대조적인 공간감각, 의식의 흐름, 색채미학과 같은 실험적인 기법을 차용하는 낭만적 심리적 리얼리즘 기법은 불온하고 감시당하는 사회의 어두운 주제의식을 검열을 피해가며 카프문학이 지닌 사상의 경직성과 이분법적 사유에서 벗어나는 이효석 문학의 특징이다. 작가는 사상과 본능, 이성과 감각, 의무와 쾌락 사이에서 번민하고 사유하는 근대인의 노정을 특유의 감성과 색채, 이미지로 표현했다. 본고는 1920년대 동반자문학과 1933년 <돈> 사이에 발표된 이효석 문학에 주목한바 일제압박과 공포가 극심했지만 마르크스, 콜론타이, 프롤레타리아, 투사, 「자본론」 등의 용어가 구체적으로 명시되며 주의자남성과 맑스 레이드의 붉은 혁명과 붉은 사랑이라는 양가적 요소가 가장 열정적이고 치열했던 시대에 마르크스 사상이 작품 속에 어떻게 구현되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 시기의 이효석은 주의자의 성과 사랑, 동거를 통해 인간본성과 생명력유지로서의 생존전략을 예리하게 해부했다. 이효석 소설에서 마르크시즘은 사상 자체에 주목하기 보다는 실존과 인간본성을 파헤치는 소재로 차용되었다.

주제어: 마르크스(Marx), 주의자(ideologist), 붉은 혁명(red revolution), 붉은 사랑(red love), 식(食)과 색(色)(food and color), 전향(conversion), 콜론타이즘(Kollontatism)

I. 머리말

성과 자연을 소재로 에로티시즘과 서구지향성, 서정성의 작가로 평가받는 이효석은 계급의식을 그린 동반자소설로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경성제대 일본인교수와 절친 유진오로부터 전세계를 휩쓴 마르크스 사상의 영향¹⁾을 받았고, 당대 조선문단의 주류도 계급문학이었기에 자연스럽게 이를

1) 일본제국 출신 교수와 피식민지민 대학생과의 연결고리는 교수 이전에 마르크시스트로서 국적의 구별없이 이념적 투쟁 곧 제국주의 타도와 식민지해방운동에 전력한 공

수용하였다. 1930년대 중후반의 대표작에 나타난 생명력과 인간본성 탐구, 서정성, 에로티시즘, 탐미적 색채, 서구지향 및 이국정취, 도시문학적 특질에 비해 부각되진 못했으나 마르크시즘의 영향은 지대했다.

본고는 192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조선공산당 탄압과 1931년 카프 제1차 검거라는 현실적 외압과 사상의 위축으로 전향할 수밖에 없던 문단적 흐름 속에서 마르크시즘이 이효석 소설에 어떤 방식으로 전유 및 차용되었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그는 지속적으로 주의자 남성과 맑스 레이디, 엔겔스 걸을 주인공으로 마르크스 운동 및 그 후일담을 담았다. 마르크스주의 세계관을 바탕으로 사회주의혁명을 지향했던 운동조직인 카프는 1930년 일본에서 진입한 강경파로 인해 볼셰비키화되었고, 1931년 조직내부의 논쟁에 이어 임화가 만든 영화 ‘지하촌’ 사건으로 카프구성원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가 이루어졌다. 약 넉 달 동안 안막, 임화, 김남천, 박영희, 김기진, 이기영 등 17명의 임원이 구속되고 30여명의 인사가 검거된 이후 1934년 6월 신건실사사건으로 또다시 간부와 맹원이 구속되어 실형을 선고받은 2차 검거가 있었다. 많은 작가들이 단체를 탈퇴하거나 전향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바 이 시기가 얼마나 살벌하게 사상을 탄압하고 불허했는지 카프역사는 보여준다. 1931년 만주사변, 신간회와 근우회 해체 등 일제의 검거선풍과 탄압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무단정치의 공포사회가 조성된 것이다.

식민지조선 문단을 10여 년간 이끌어온 마르크시즘에 기반한 계급문학은 ‘당시 한국 사람들은 민족해방운동만이 지나거나 생각하는 일이었으며

통점으로 사제지간의 갈등을 극복할 수 있었고, 대학 일년 선배로 친했던 유진오는 대학시절 경제연구회라는 마르크스단체를 만들 정도로 사회주의에 경도되었다. - 김용덕, 「경성제국대학의 교육과 조선인학생」, 『한일공동연구총서』제5호,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2007, p.142.

이 사상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사람이 누구 있었으랴!」²⁾는 박영희의 말처럼 식민지 상황의 절실한 요구에 급속도로 퍼져나갔다. 1925년부터 1935년에 이르는 일련의 경향문학과 사상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작가들에게 영향을 끼쳤다. 이효석도 마르크시즘에 기반한 동반자적 색채로 출발하였다. 식민지 근대도시 경성을 배경으로 가난, 굶주림(주리면, 프렐류드), 도둑질(기우, 추억), 성매매 및 여성수난(약령기, 깨뜨려지는 흥등, 기우, 북국사신), 도박(마작철학), 자살과 죽음(주리면, 약령기), 파업(깨뜨려지는 흥등, 마작철학), 유랑(행진곡) 등 시대적 고난과 고통을 통한 피식민지민의 삶의 절곡이 나타남으로써 계급의식과 현실비판을 드러냈다. 마르크시즘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정치적 망명을 그린 북국 삼부작(상륙, 북국사신, 노령근해)에서 혁명과 계급적 투쟁이 성취된 마르크시즘 유토피아로서의 북국 공간을 설정하여 사상적 의지를 표출했다.

1931년부터 1934년까지 발표된 이효석 소설에선 빈궁과 사회적 모순을 형상화한 1920년대 동반자문학과 달리 마르크스 사상, 마르크시스트, 콜론타이즘, 주의자, 프롤레타리아, 투사, 「자본론」 등의 단어들 이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있으며, 비밀집회 및 연구회 모임 활동, 파업과 소요, 감시와 검열, 고문과 취조 및 옥살이 양상과 전향 등의 사회상을 구체적으로 재현하였다. 1920년대 중반의 초기 동반자문학과 193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성과 자연으로 전환한 이효석 문학 사이에 마르크시즘을 차용한 작품들이 집중적으로 발표된바 본고는 이 시기의 문학적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마르크시즘의 관점에서 고찰한 선행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조명기는 사적 욕망과 시대적 소명의식의 갈등 속에서 마르크시즘을 부정하고 반성

2) 회월, 「현대한국문학사」, 사상계, 1959.3.

해야할 대상으로 간주하고자 하는 표면적 의식과 이에 대한 지식인으로서의 감추어진 자괴감이라는 이중적 모습이 원죄의식으로 나타난다고³⁾ 보았다. 한민주는 이효석 작품 속에 서양의 세기말적 데카당스의 정조가 흐르는 것은 작가 자신의 식민지인, 전향자로서의 남근적인 권위 불안에 기원한다고⁴⁾ 해석하였다. 마르크시즘과 콜론타이즘이 투영된 작품들의 사상적 전유 양상을 통해 이효석 문학의 본질과 특징을 파악함이 이 글의 연구목적이다.

II. 주의자의 붉은 혁명과 사랑

마르크시즘이 깊숙이 내재됨을 증명하는 1930년대 초기 소설엔 살벌하고 공포스러운 서울 풍경과 감시와 통제 속에 놓인 시민들의 일상이 예리하게 포착된다. <오후의 해조>는 주인이 투옥된 마르크스주의서적 전문의 MH점을 배경으로 한다. 1920년대 전반 러시아혁명과 일본정치의 다이쇼 데모크라시 영향으로 칼 마르크스, 레닌사상, 혁명사 저술에 관대했던 일제는 1927년 무렵부터 사상서적의 단속을 강화⁵⁾하기 시작했다. 만주사변 이후 단속은 더욱 엄중했고 1932년 3월에는 서울의 민중서원, 동광당서점, 신흥서점 주인을 검거하여 검찰에 송치했는데 동경과 오사카에서 몰래 적색서적을 수입하고 서울에서 비밀 출판된 펄플릿 등을 비밀 판매한 혐의⁶⁾였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반영된 이 소설의 소극적 마르크시스트

3) 조명기, 「이효석의 맑시즘 비판 논리와 원죄의식」, 『우리말글』 제31집, 우리말글학회, 2004, p.19.

4) 한민주, 「이효석의 전향소설에 나타난 신체의 정치학 연구」, 한국문예연구소 엮음, 『가산 이효석의 삶과 문학세계』, 학교방, 2008, p.217.

5) 정진석, 『일제강점기 금지도서 목록』, 소명출판, 2014, pp.10-11.

6) 정진석, 위의 책, p.12.

한민은 서점주인의 딸 나무를 좋아해 서점을 자주 드나들며 적극적인 투사가 된다. ‘사건이 폭발한 지 불과 며칠 안 되는 이제 물샴뜰없는 경계당은 실로 어마어마하다’는 진술이 암시하듯이 신간광고 뼈라 오천 장을 인쇄소에 맡기는 위험한 일상 속에서도 한민은 혁명가의 딸 나무와 뼈라를 뿌리며 붉은 열정과 위험한 사랑을 속삭인다.

‘해조(諧調)’는 즐거운 가락을 의미한다. 오후 아지(agitation)의 효과가 담긴 통쾌한 글을 위해 여섯 개의 톨리의 회전이 부드럽고 단순한 해조가 인쇄소에 그득히 울린다. 근대문명의 소리인 기계소리와 잉크냄새 등 공감각이 동원된 뼈라인쇄과정⁷⁾이 면밀하게 그려진다. 뼈라를 등사하는 덜컹덜컹! 덜컹덜컹! 하는 톨리의 회전이 명쾌한 기계의 음조가 감각을 자극하는 혁명의 내용이 담긴 인쇄글이 어두운 밤 전주와 판장과 벽돌담, 거리에 뿌려지는데 반해 중국창기집의 창녀가 가을 오후 햇빛을 향락하며 단발 밑에 간들거리는 금귀고리가 햇빛을 받아 반짝반짝 빛나는 뒷골목 풍경이 1930년대 서울이다. <오후의 해조>는 입체적 활자의 감각에 쾌감을 느끼면서 흥분하는 혁명가와 쾌락을 기다리는 창녀가 공존하는 모순된 도시를 시공간을 가르면서 무심하지만 세련되게 그린다. ‘오후’라는 시간성과 인쇄소라는 공간성 그리고 즐거운 소리는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피식민지민의 처절하지만 낙관적인 희망을 담고 있다.

<프렐류드>의 ‘가련한 마르크시스트’인 주화는 자살을 실행하고자 한다. ‘이즈러진 용모, 깎아내린 듯이 여윈 두 볼, 윤택 없는 두 눈’의 거울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좁고 어두운 방에 거주하는 그는 자살의 자기 원인이 물질에 있어서 극도로 빈궁한 까닭이었음을 깨닫고 위대한 마르크스가 자신의 처지처럼 궁해본 적이 있었을까?) 자문하며 반감을 드러낸다.

7) 독일에서 태어난 카를 하인리히 마르크스(1818~1883)는 아버지가 변호사여서 부유한 환경에서 자랐으며 나중에는 정치없는 망명생활과 가난으로 자기의 평생 동지인

벽 위의 마르크스 초상화를 신경질적으로 떼어내며 자신의 조상이자 스승이자 동지인 마르크스와의 결별을 선언한 주화는 대학시절 자신을 인도하고 숭배했던 「자본론」 원서를 팔아 자살약을 산다.

‘여기에도 한 서곡이 있다’는 부제를 달고 있는 소설 제목 ‘prelude’는 음악에서 전주가 시작되기 전 연주되는 도입곡이라는 뜻으로, 마르크스에 실망하고 무직의 절망적 상태에서 자살을 결심했던 주화가 내일의 여명과 생애의 출발을 다짐하는 시작을 의미한다. 경성의 변화하고 넓은 길은 몸과는 화장한 여성이 함께 어우러지는 근대공간이며, 고불고불하고 좁은 골목길은 위험, 불온, 감시 하에 진행되는 학교/공장 파업과 뼈라 뿌리는 정치적 혁명적 공간이다. 전자는 세속적 경험적 시간이며 후자는 이 시간을 파괴하면서 출현하는 메시아적이고 혁명적인 시간으로, 잠재적인 시간으로서 경험적 시간에 내재해 있다가 불현 듯 도래하는 구원이자 혁명의 순간⁸⁾이다.

일정한 직업과 생활의 보증, 빈한한 계급을 비판한 주화는 우연히 만난 처녀투사 주남죽에 의해 인생의 서곡을 올리는 변모를 가져온다. ‘스캐티시즘’과 ‘로맨티시즘’과 ‘소피즘’과 ‘니힐리즘’을 섞은 칵테일과 범벅 같은 이론과 결론에 방황하며 경제적 형편과 희망이 없자 ‘칼모틴’, ‘취약’, ‘헤로인’, ‘청산가리’, ‘스트리키니네’, ‘알로날’ 중에서 알로날을 선택해 자살을 꾀한다. 생경하고 낯선 단어 나열은 언어적 효과를 내며 개인의 좌절로 인한 심리적 고통 즉 정신통을 상기시킨다. 유사한 단어의 병치는 정신적 물질적으로 결핍되고 억압적이며 폭력적인 식민지현실에서 사상과 생활, 관념과 애욕을 조화시키는데 실패한 주의자의 복잡미묘한 이념과 자의식을 나타낸다.

8) 앵겔스에게서 생활비를 지원받았다. - 김수행, 『자본론 공부』, 돌베개, 2014, pp.16-18.
8) 권혁웅, 「이미지, 사유의 체계」, 『한국시학연구』제47호, 한국시학회, 2016, p.206.

밤낮 어두운 방에서 죽음을 생각한 그는 자살의 정당성을 이론화하고 그 방법을 강구하며 가지가지의 자살의 광경을 머릿속에 그린다. 인류의 역사와 문화의 탑, 변증법적 발전과 혁명 이후를 사유한 자살자는 ‘조금도 난폭하거나 급하지 않고 미리 자신의 계획을 심사숙고하며 최후까지 자신을 분석’⁹⁾한다. 그러나 그의 사상적 회의와 삶에 대한 절망은 아름다운 처녀로 인해 반전되어 니힐리즘을 극복한다. 햇빛 밑 ‘새로운’ 거리에서 미녀와의 조우는 어둡고 칙칙한 방과 일정한 생활의 보증이 없기 때문이라는 자살 이유를 깨닫게 했다. 주화의 죽음은 개인의 열망에 미치는 사회의 영향이 결핍됨으로써 개인을 제동없이 방치해서 일어나는 아노미성 자살¹⁰⁾이다. 지식청년의 목숨을 버리고자 하는 행위는 이 시대가 무규정상태, 정신적 공황상태, 도덕을 모르는 상태의 아노미¹¹⁾로서 혼란한 사회와 경제적 위기라는 총체적 난국이기 때문이다. 어둠과 밝음, 좁음과 넓은, 직선거리와 골목, 고개 등의 대조를 통해 열악하고 빈궁한 생활환경이 근대인에게 끼치는 1930년대 초기 현실을 작가는 낭만적 리얼리즘 창작방법에 따라 형상화한다.

<오리온과 능금>의 연구회에 ‘동지’보다는 ‘여자’라는 느낌으로 다가오는 나오미가 입회하면서 ‘나’는 아름답고 사치하고 모던한 그녀가 프롤레타리아 투사가 될까 의문을 갖는다. 여공, 학생, 점원 등 5,6명의 회원들로 구성된 모임에선「×××××」를 독일어 번역과 대조하여 읽고 토의하고 의식화한다. 방향이 같은 나오미와의 동행중 콜론타이와 바실리사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두 남녀는 공장 폭발로 회원 S가 늦어지고 로자의 초상화가 별안간 떨어지자 숨겨왔던 애욕을 분출한다. 이 소설은 이념과 사상을 ‘오리온’

9) 에밀 뒤르켐, 황보중우 역, 『자살론』, 청아출판사, 2008, p.351.

10) 위의 책, p.322.

11) 원민재, 『뒤르켐이 들려주는 자살론 이야기』, 자음과모음, 2006, pp.144-145.

으로, 애육과 생활을 ‘능금’으로 상징된 두 요소를 통해 인간의 속성을 해부한다.

<주리야>는 시골소녀 김영애가 강연을 듣고 감동을 받은 주화를 쫓아 사상 모임에 참여하면서 이론과 현실의 차이를 인식하고 성장하는 이야기이다. 투사, 여인, 모던걸이 되고자 하는 그녀는 이름을 주리야로 바꾸고 가출 상경한다. 「로자전기」, 「자본주의개략」, 「유물론초보」, 「경제학ABC」, 「자본론」을 읽고 사상성을 강화하는 모임엔 남죽, 남희 자매, 남희의 애인 민호, 주화 등의 회원들이 있다. 주리야는 언니처럼 느끼며 친밀감을 갖는 남죽과 달리 남희에게 불쾌한 감정을 갖는데 불어를 공부하는 자신과 달리 에스페란토를 공부하는 남희가 한가하게 불어를 배울 틈이 없다는 말을 했기 때문이다. 불어보다 반제국주의 성향이 강한 국제어를 배우는데 우월감을 드러내며 멋진 대학생 애인을 둔 남희를 본능적으로 미워하는 주리야는 민호를 유혹하여 관계를 맺는다. 남성에게 사상을 주입받고 교육과 계몽의 대상이 되는 설정은 강경애가 양주동에게 교육을 통한 동거생활을 한다든지 이효석과 편지를 주고받았던 여성소설가 최정희의 삶에서도 주의자 연애가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웠던 당대의 남녀관계가 반영된 것이다.

민호와의 일탈이란 비밀을 간직한 그녀는 자유의지로 살아가려는 자신과 봉건적인 식민지 현실과의 괴리를 느끼고 벽위의 로자의 초상화를 뜯어서 책갈피에 끼워두고 유산을 한 후 귀향한다. 식민지 트라우마를 간직한 시대에 이념과 사랑을 혼란스럽게 온몸으로 체득한 주리야의 통과의례를 작가는 ‘반동건동’¹²⁾이라고 말한다. 이 양태는 사랑도 혁명도 완수할 수 없게 만드는 시대상을 상징한다. 소설 제목 ‘주리야’는 ‘주화’의 성과 즐겨 읽는 소설의 여주인공을 합쳐 작명한 이름으로 깊숙이 체화되지 않은 신

12) “일을 다 끝내지 못하고 중도에서 성의 없이 그만두는 모양”을 뜻한다.

념이나 소설 속 여주인공이 간접적으로 매개되어 모방한 시골소녀의 짧은 경험을 의미한다. 공감각적 표현과 기교를 중시하는 작가는 이 소설에서도 ‘공설시장의 야채의 감각과 진열장의 미학’, ‘노랑빛의 아름다운 책에 대한 애착과 감흥’, ‘노랑빛, 분홍빛의 찬란한 기쁨’ 등 색채로 감정과 심리를 전달한다.

<수난>은 잡지사 편집실에 근무하는 유라가 자신에게 관심 갖는 남성들에게 성적으로 대상화되고 비난받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나’의 시선으로 그린다. 나는 그녀에게 소설 창작을 지도하면서 남자문제까지 상담하게 된다. 동료 A는 우정의 한계를 넘어선 사랑을 고백하지만 그녀가 쌀쌀맞게 대하자 중상과 소문을 내다가 사직한다. A 대신 입사한 과거의 빛나는 투사이자 가정풍파를 겪은 중년의 B도 수없이 편지로 하소연하고 구애하며 유라를 괴롭힌다. 운동의 전선에서 탈락한 후 할 일 없이 거리를 돌아다니는 사나이이자 B와도 과거의 동무이자 사랑의 적수인 D 역시 지도를 핑계로 유라를 심경에 두다가 결국 B와 D의 폭력사태가 발생한다. 1933년부터 주의자의 마르크시즘 운동이나 투사적 정의가 사라지고 여성에 대한 소유욕망과 질투라는 사적 감정을 폭로하고 여성타자의 성불평등이 전면적으로 부각된다. 이 소설은 마르크시즘이 퇴조됨으로써 정신적 지주를 상실했다는 허탈감과 식민지 지식인의 회귀할 곳을 어둡게 함으로써 전향과 친일 사이를 오가는 주의자의 생태와 심리를 그린 전향소설, 후일 담소설적 성격을 지닌다.

이와 같이 1930년대 초기에 발표된 소설의 작중인물은 투사, 주의자, 운동가, 의식화된 여성이거나 파업 혹은 사회주의 운동으로 투옥된 사람이다. <오후의 해조>의 나루는 맑스주의 서점을 운영하는 아버지가 감옥에 있는 혁명가 가정 출신으로 부친의 뒤를 이어 뼈라 뿌리는 위험한 일을 한다. <오리온과 능금>의 나오미에게도 투사로서 영어의 몸이 된 친척 아

저씨가 있다. <프렐루드>의 주남죽은 학교와 공장 파업에 참여하며 거리에서 뼈라를 뿌리고, <주리아>의 차점 ‘아리랑’ 주인 한라는 투옥 중인 남편 옥바라지를 위해 형무소를 드나들며, 갓난애를 업고까지 와서 면회를 거절당한 아낙네 등 혁명의 시대에 가부장을 감옥에 보내고 생계와 육아를 책임지는 여성이 등장한다. 사상모임의 회원들이 잡혀가는 극한 상황을 통해 카프 제1,2차 검거사건이 진행된 사회적 분위기를 전달한다. 작가가 특히 주의자 여성을 선호하는 이유는 시대가 주는 상황 때문이기도 하지만 ‘정미(情味)와 고도의 지성, 이 두 가지 심조(心操)를 갖춘 이상의 여인으로 소설심(小說心)을 자극하고 비운과 박명을 지닌 마르리트 같은 운명’¹³⁾과 지적인 여성으로서 적합했기 때문이다.

당대 젊은이들은 일제의 감시를 피해가면서 마르크스, 콜론타이, 로자의 붉은서적을 읽고 의식화되었으며, 독일어, 불어, 에스페란토어를 공부하거나 원서와 대조하면서 규칙적으로 공부하였다. <오후의 해조>의 현민과 나루, <프렐루드>의 주화와 남죽, <오리온과 능금>의 ‘나’와 나오미, <주리아>의 주화와 주리아, 남희와 민호, <수난>의 B,D와 유라는 사회주의 이론에 주입되고 연구하며 운동을 실천한 커플들이다. 외적으로는 일제의 탄압, 체포, 구금, 경계가 극심했지만 독립, 계급타파, 혁명을 향한 당대의 젊은이들의 저항과 운동 또한 극렬하고 열정적이었다.

1931년부터 1934년까지 발표된 이 시기의 작품에 나타난 심리적 사회적 색채는 붉은색이다.

밤을 새우며 붉은 피를 기울여서 초 잡아 놓은 이 통쾌한 글의 ‘아지(agitation)’의 효과를 생각하며 불시에 솟아오르는 감격이 가슴과 눈을 뜨겁게 하였던 것이다.

13) 이효석, 「동해의 여인」(신동아, 36.7), 이효석문학재단 엮음, 『이효석전집』 5권,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pp.85-86.

8엽 룰이니 앞으로 한 시간이면 인쇄가 끝날 것이다. 나루와 나누어 책보에 싸가지고 거리의 눈을 기하여 서점에 갔다가 밤 됨을 기다려 동무들과 분담하여 전주와 판장과 벽돌담에-거리의 구석구석에 일제히 뿌릴 것이다. 그리고 일부는 동무들의 등사한 것과 같이 중요한 도시와 각 단체에 우편으로 배포할 것이니 날이 지나면 거리거리에서 붉은 열정과 고품이 일시에 지동 치듯 솟아오를 것이다.¹⁴⁾

저무는 서편 하늘 일대는 때 아닌 노을이 뱉어 놓은 붉은 피에 젖어 있었다. 붉은 피 속으로는 무거운 해가 몰락을 섭섭히 여기어 최후의 일순을 주저하고 있었다. 피투성이가 되어서도 뻔히 결정된 마지막 운명을 게두덜거리며 다투고 있는 해의 꼴이 주화의 눈에는 흥측스럽게 비치었다.

내일의 여명은 찬란히 빛나리라!¹⁵⁾

‘붉은 피’, ‘붉은 열정’, ‘붉은 마음’, ‘붉은 노을’, ‘혈서’ 등 일제의 악랄한 감시와 경계 속에서도 변혁을 위해 뼈라를 뿌리고, 학교나 공장에서는 파업이 일상화되며 가족과 친족은 투옥되었지만 사랑 또한 강렬하게 탐색되었던 피의 시대였다. 강렬한 색감인 붉은색은 열정, 따뜻함, 힘, 사랑뿐만 아니라 분노, 금지, 경고의 의미¹⁶⁾를 지니거나 고대의 신화창조로서의 대지 혹은 역사의 시작이나 태초의 대륙을 뜻함으로써 근원적 사유이자 매혹적 주제를 상징하는 색채로 작동한다. 정치적 좌파 즉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와 혁명의 피로 상징되는 붉은색은 서구문화에서 여성의 성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기능하고 피, 섹스, 정육, 흥등가를 연상¹⁷⁾시킨다는 점에서 이념과 일상, 이성과 욕망이 공존하는 양가적 요소를 동시에 내포한다.

투옥된 아버지의 뜻을 잇는 <오후의 해조>의 나루, 굶주림과 가난으로 자살을 결심하는 <프렐류드>의 주화, <주리아>의 투옥된 한라의 남편 등

14) 이효석, 「오후의 해조」(신홍, 31.7), 이효석문학재단 엮음, 『이효석전집』 1권,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p.247.

15) 이효석, <프렐류드>(동광 31.12-32.2), 위의 책, p.279.

16) 안느 바리송, 채아인 역, 『더 컬러』, 이종, 2012, p.82.

17) 개빈 에번스, 강미경 역, 『컬러 인문학』, 김영사, 2018, pp.28-32.

체포되고 고문당하고 투옥된 젊은이들이 살아가는 1930년대 전반기는 무단정책이 극단으로 치달는 사회였다. 공포와 위협이 도사릴수록 남녀 간의 사랑 역시 ‘염통의 고동소리’(오리온과 능금)와 같이 치열하게 집착하며 극단적으로 나아갔다. 공포와 감시, 투옥이라는 암흑의 시대에 주의자의 성, 사랑, 동거가 일상화된 붉은 사랑과 붉은 혁명 등 ‘붉은색’을 동원하여 효과적으로 표출된 사회상을 작가는 예술적으로 재현했다.

Ⅲ. 불온한 혁명과 찬란한 모더니티

이효석은 에로티시즘 작가로 평가되지만 애욕은 인간 본성을 이해하는 소재로 작동될 뿐 의지와 이성을 주창하고 관능과 쾌락에 함몰된 자본주의적인 근대성과 야만과 무지의 봉건적 보수적인 전근대성을 일제히 비판했다.

세상의 일만 가지 물상이 변증법적으로 변천하여 가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므로 또한 혁명이 있는 후의 상태라고 결코 완전무결한 마지막의 상태는 아닐 것이니 티가 없다고 생각되는 그 상태 속에는 어느 곁에 이미 모순이 포태되어 그것이 차차 자라서 다음의 혁명을 가져올 것이다. 결국 변천하고 또 변천하여 그칠 바를 모르는 것이니 최후의 안정된 절대의 상태라는 것을 사람은 바랄 수 없을 것이다. 이 또한 안타까운 사실이 아닌가. 그리고 어디까지든지 통일을 구하여 마지않는 사람은 이 그칠 줄 모르는 변천 가운데에서 공연한 헛수고에 피로하여 버릴 것이다. 인류의 모든 움직임과 혁명을 조종하는 근본은 식(食)과 색(色)이니 이 단순한 동물적 충동에 끌려 보기 흉하게 날뛰는 사람들의 꼴, 이것이 또한 우울한 것이 아닌가—이렇게도 주화는 생각하였다.¹⁸⁾

18) 이효석, <프렐류드>(동광, 31.12-32.2), 이효석문학재단 엮음, 앞의 책, pp.250-251.

<프렐류드>의 변증법적 유물론적 사관을 지닌 마르크시스트 주화는 완벽한 사상은 없으며 혁명 이후 또한 보장받을 수 없다고 토로한다. 이론으로 무장된 그는 인류에게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것은 식(食)과 색(色)이라고 하면서도 동물적 본능과 자본주의적 향락에 빠진 근대인의 모습에 실망하고 우울해진다. 이효석 소설에서 정치와 성, 사상과 생활, 이성과 본능은 대립되거나 후자쪽으로 변모되기보다는 처음부터 두 요소가 배태되어 강도에 따라 양태가 드러나는 인간본성으로 이해되었다. 자기보존과 자기만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코나투스적 존재¹⁹⁾인 인간은 정신적 층위의 의지와 신체와 정신에 관계되는 충동 그리고 동물적인 충동과 구분짓는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주화는 사상을 버리고 희망 없는 세상을 비판하며 자살을 하려고 길을 나섰다가 우연한 만남으로 삶의 희망과 사상을 되찾는다. 사상과 미, 애욕은 나뉘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일상에서 중층적으로 겹쳐지고 포개지면서 상황에 따라 나타나기에 ‘마르크스’(이념과 사상)와 ‘미녀’(욕망과 쾌락)가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마르크시즘에 경도된 <오후의 해조>, <프렐류드>와 달리 애욕의 세계로 나아가는 <오리온과 능금>은 ‘맑스사상’과 ‘능금의 철학’의 길항을 화두로 삼고 있다.

그러나 밝은 밤거리에서 아름다운 여자가 능금을 버적버적 먹는 풍경은 프롤레타리아답다느니보다는 차라리 한쪽의 아름다운 ‘모던’ 풍경이었다. 그 만큼 아름다운 나오미의 자태에는 프롤레타리아다운 점은 한 점도 없으며 미래에도 그가 얼마나한 정도의 프롤레타리아 투사가 될까도 자못 의문이었다 -너무도 아름답고 사치하고 ‘모던’한 나오미였다. “능금 좋아하세요?” “싫어하는 사람이 어데 있겠소. 모다 아담의 아들이요 이브의 딸이니까요.” “자 그럼 한 개 잡주세요.” 나오미는 여전히 미소하면서 능금 한 개를 나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렇지요. 조상 때부터 좋아하던 능금과 우리는 인연을 끊을

19) 이수영, 『에티카, 자유와 긍정의 철학』, 오월의봄, 2013, p.240.

수는 없어요. 능금은 누구나 좋아하던 것이고 또 영원히 좋은 것이겠지요-공간과 시간을 초월하여 높게 빛나는 능금이지요. 마치 저 하늘의 오리온과도 같이 길이길이 빛나는 것이예요.” “능금의 철학” “이라고 해도 좋지요-그러니까 프롤레타리아 투사에게라고 결코 능금이 금단의 과일이 아니겠지요. 밥을 먹지 않으면 안 되는 투사가 능금을 먹지 말라는 법이 어데 있어요.”²⁰⁾

원죄의식과 금단의 경계를 넘는 능금의 철학은 관능, 애욕, 생활을 지칭한다. 마르크스 공부 모임에서 만난 나오미의 노골적인 고백과 유혹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 계급적 사업에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고 응대하는 주화는 성적 욕망으로 무너지고 만다. 이성과 감정, 사상과 애욕, 마르크시즘과 에로티시즘은 양가적이고 동시적인 인간본성이지만, 혁명과 구원을 가져다주는 이념과 세속적이고 일상적인 에로스 층위에서 후자가 더욱 현실적이고 구체적임을 나오미와의 관계에서 나타난다. 세상을 바꿀 메시아적 순간을 위해 사상을 놓지 않는 이 시대의 젊은이들은 하늘에 떠있는 ‘오리온’과 금방 베어낼 수 있는 ‘능금’을 오가며 ‘그것이 개인적으로 불행을 심화시키거나 삶에 별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그 대상 자체가 삶을 연속시키는 조건으로 작용하기에 포기하지 못하는 잔혹한 낙관주의²¹⁾를 보인다.

두 요소가 작동되는 현실은 공간대비와 색채로 묘사된다. 맑스운동과 뼈라를 준비하는 공간이 온돌방, 서점, 인쇄소, 공장 등이 있는 어둡고 좁은 골목길, 고개에 위치한다면, 백화점, 과자점, 아파트, 매약점, 여학교 등 근대도시를 상징하는 건물들은 변화하고 변잡한 거리, 찬란한 일류미네이션의 난사를 받는 거리로서 단장한 계집이나 소비를 하는 한쌍의 부부가 머무는 곳이다. 어둡고 음산한 거리에선 물샴뜰없는 경계망을 피해 뼈라를 뿌리며 목숨 걸고 변혁을 꿈꾸는 주의자, 투사들이 활동하지만 근대자본주

20) 이효석, <오리온과 능금>(삼천리, 32.3), 이효석문학재단 엮음, 앞의 책, pp.283-284.

21) 멜리사 그레그/그레고리 시그워스, 최성희 외역, 『정동이론』, 갈무리, 2015, p.162.

의가 정립되는 한쪽에서는 소비와 매춘과 쾌락과 물질문명의 윤택함을 누리는 근대인의 제어불가능한 물욕과 성욕이 배출되고 있다. 단장한 계집들이 거리를 다니고 백화점 안의 생활용품과 시장의 식료품이 화려하게 진열되며 라디오와 레코드가 노래하는 번잡한 거리는 경성의 또다른 풍경이다. 빛나는 자본주의적 욕망과 불의에 저항하고 사회를 변혁하고자 하는 붉은 열정이 공존하는 1930년대 전반기 경성에서 남녀 간의 사랑은 위험할수록 더욱 불타오르고 집착적이며 관능적이었다.

<주리아>의 주리아는 ‘로자도 장에 가는 법 있나요?’, ‘나는 무지한 암탉이 되기 싫어요.’라며 성역할을 거부하지만 로자도 행주치마를 입고 요리를 배웠기에 이에 곧 수긍한다. 주리아는 공설시장과 진열장의 사물들에 현혹되며 시장과 방안과 거리의 로자 사이에서 혼란스러워 한다. 주화의 강연과 로자 전기를 통해 획득한 이념과 생활과의 간극에서 욕망과 동물적 충동을 제어하지 못하는 주리아는 자본주의적 욕망과 마르크스 사상과 가부장적인 조선현실의 아이러니와 모순을 체득한다. 시대를 변혁하고자 하는 위대한 사상보다 더 절실하고 일상적인 것은 삶을 유지하는 것이다.

온갖 야채와 과일이 진열된 시장과 큰 거리에 위치한 매혹적인 물건들을 전시한 백화점이라는 공간은 자본주의적 근대를 표상하는 성적 물질적으로 유혹하는 공간이며, 공장, 경찰서, 감옥은 피식민지민을 감시하고 자유를 억압하는 식민통치의 공간이다. 또한 골방, 인쇄소, 서점, 뒷골목은 죽음과 저항과 혁명의 공간이다. 경성의 공간적 분할을 통해 작가는 동시대적으로 일상화된 밝음과 어둠, 붉은색과 햇빛, 좁음과 넓음, 암울함과 찬란함이 공존하는 식민도시를 미학적으로 형상화한다. 큰 거리와 햇빛, 좁은 골목과 어두운 거리를 대비하면서 환락과 이성마비의 모더니티와 불온하고 위험스러운 일상성을 그린 근대도시를 소묘한다. 뼈라와 파업의 시대, 붉은 혁명의 시대라는 사상적 층위와 황금광시대, 연애시대라는 모더

니티 풍경을 동시에 포착한 이효석은 1930년대 전반기 경성의 일상성과 혁명성을 놓치지 않고 성찰하였다.

IV. 콜론타이즘과 혁명의 위선

1932,3년부터 일체의 사상이 불허되고 탄압이 극심한 무단정치가 시작된 식민지조선은 애욕과 세태, 생활로 전향할 수밖에 없는 문학적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오후의 해조>, <프렐류드>에서는 마르크시즘과「자본론」이 작품의 소재로 차용되었다면 <오리온과 능금>, <주리아>에서는 콜론타이즘과 「붉은 사랑」에 대한 관심으로 옮겨간다. 알렉산드라 콜론타이는 1917년 러시아혁명을 주도한 볼셰비키이자 사회변혁과 여성해방을 지향한 여성혁명가이다. 아이를 낳지 않을 권리(독신의 권리)와 여성을 예측하는 관심과 체제에 맞서 싸워 성적 자율성에 기반한 새로운 남녀관계를 실천하는 신여성 개념을 만든 그녀의 사상은 1920~1940년대 식민지조선에 널리 소개되어 사회주의 여성운동가에게 영향을 끼쳤다.

‘적련’ 즉 ‘붉은 사랑’은 평범한 처녀가 어떻게 열렬한 투사가 되고 성과 사랑에 있어서의 자유를 개척하게 되는지를 보여주는²²⁾ 소설로, <주리아>의 여주인공의 삶을 알레고리화한다. 시골소녀 주리아는 자유의지와 자유 연애를 실천하면서 불륜을 저지르고 죄책감 없이 유산함으로써 모성애가 결여된 붉은 사랑을 실천한 콜론타이와 여주인공 바실리사를 모방한다. 근우회 중앙위원장인 여성혁명가이자 여성평론가 정철성이나 허정숙, 주세죽 등 주의자 여성들이 붉은 사랑을 실천했지만 방탕하고 자유분방한 측면

22) 권보드래, 『연애의 시대』, 현실문화연구, 2003, p.201.

만 비난을 받았다. 사회주의 활동을 했던 주세죽과 박헌영, 허정숙과 임원근의 관계는 혁명운동과 독립운동을 함께 하는 친구이자 동지이자 연인관계²³⁾였다. 이론뿐만 아니라 소설 <붉은 사랑>의 러시아혁명, 내전에 참여한 아나키스트이자 회계전문가인 블라지미르와 불세비키이자 노동계급 출신의 바샤의 사랑이야기는 이효석 소설에서 젊은이들의 논쟁 소재로 자주 차용되며 성정치와 젠더문제의 쟁점²⁴⁾이 되었다.

짧은 시기에 서구이론을 급박하게 받아들인 연애는 자유분방한 유부남과의 불륜 및 동거로 나아가 보수적 관습적인 가치와 충돌했다. 사회주의 지식인 여성들은 물질적 조건이 지배하는 근대결혼이나 자유의지 혹은 성적 자기결정권이 배제된 전통결혼에 저항하며 인간답게 살기 바랬다. 사유재산제의 지배에서 비롯된 여성지배를 극복하기 위해 계급해방이 곧 여성해방임을 주창한 마르크시즘을 굳게 믿은 여성들은 적극적으로 운동에 투신했다. 이런 현상을 두고 콜론타이즘에 몰들어 가지고 무조건하고 성적 방종에 흐르는 분자 등 무원칙하게 절조없는 성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 금일의 조선현상으로 현실과 이상의 모순에서 발생하는 비극을 공허한 탄식이나 고민에서만 해결의 열쇠를 얻으려고 방황²⁵⁾한다고 비판하였다.

그러나 콜론타이의 연애론은 연애에 있어서 영육을 둘로 나누고 본능의 향락에

23) 이철, 『경성을 뒤흔든 11가지 연애사건』, 다산초당, 2008, p.242.

24) 식민지 조선에서의 콜론타이 저서의 소개와 논쟁이 자주 이루어졌다. 정철성, 「<적련>비판, 프론타이의 성도덕에 대하여」(삼천리, 1929.9), 「난류와 사회주의자의 문제」(삼천리, 1931.6), 김은, 「코론타이 연애관 비평」(별건곤 제29호, 1930.6), 진상주, 「프로레타리아 연애의 고조: 연애에 대한 계급성」(삼천리, 1931.7), 김하성, 「세계여류운동자푸로필」(신여성, 1931.12), 김안서, 「<연애의 길>을 읽고서: 콜론타이여사의 작」(삼천리, 1932.2), 하문호, 「코론타이여사의 사상과 문학」(신가정, 1934.12)

25) 윤형식, 「프로레타리아 연애론」(삼천리 1932.4), 『위대한 사랑』, 노사과연, 2013, p.270.

만 의의를 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영혼과 육체를 기계적으로 구별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사랑과 영혼을 중요시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연애이상주의가 아닙니다.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별 문제이고 성적 본능만 기계적으로 만족하면 좋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연애에는 많은 시간과 정력이 소모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사회적 임무를 방해한다. 그 임무는 개인의 사사로운 일이 아니라 사회에 유용한 일이다. 반면 연애는 개인의 일이므로 언제까지 성욕을 참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 콜론타이 여사의 근본적 생각입니다.²⁶⁾

동지적 애정을 강조하는 콜론타이의 남녀관계는 영육일치가 아니라 영육분리와 육의 기계적 만족을 주창했고 이에 영향받은 사회주의 여성들은 동거를 하거나 여러 남성과 관계를 맺었다. 그러나 봉건적 관습적 가부장적인 식민지 조선에서 이를 실천한 여성타지는 성적으로 방탕하고 음란한 여성으로 인식되었다. 주의자의 교육, 지도, 계몽을 통해 의식화된 여성투사들은 적극적으로 운동과 혁명에 참여하며 양성평등을 주창하고 여성을 인간으로 봐달라고 요구했다. 전근대와 근대사회에서 차별받는 여성들은 아래로부터 자기를 해방시키면 남녀평등사회가 도래한다고 믿었으나 철저히 배신당했다. 여성해방 없는 혁명의 위선이 주의자들이 실천했던 붉은 사랑을 통해 밝혀진다.

<오후의 해조>의 한민은 사랑하는 나루와 함께 불온한 내용의 뼈라를 인쇄해서 거리에 뿌리며 솟아오르는 감격과 뜨거운 가슴으로 운동에 참여하며 혁명과 사랑의 일치를 보인다. <프렐류드>에서는 가난과 희망부재로 자살을 결심한 주화가 '오뚝한 코와 어글어글한 눈방울을 지닌' 처녀의 뼈라 부탁을 받고 새로운 마르크시스트로 재탄생한다. 열악하고 참혹한 현실을 해결하지 못하는 마르크스 사상에 회의적인 그는 여성투사를 만나 인생의 서곡을 울리며 사상과 욕망이 혼재된다. 사랑과 혁명이 지닌 뜨겁고 열

26) 전상주, 「콜론타이주의란 어떤 것인가?」, 삼천리 1931.11.

정적이며 위험한 속성은 일제의 탄압과 감시라는 외적 현실과 맞닿아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공장을 다니며 파업을 주도하는 여성으로 인해 위험해진 주화는 형사에게 잡혀 사흘 동안의 검속구류를 마친 사건으로 자살이 지연되며 세상을 변혁하려는 그녀에게 감화하여 삶을 연장한다. 여성과의 우연한 만남에서 삶의 이유를 찾고 마르크스 사상으로 회귀하는 주화의 변화는 우연적이고 비계획적인 삶의 아이러니를 나타내며 작가는 이성적 인식인 이념과 감성적 인식인 이성에 대한 성찰에 마르크스즘을 차용한다.

<오리온과 능금>과 <주리아>에서는「자본론」과 경제학 저서에서 콜론타이즘과「붉은 사랑」으로, 마르크스 초상화 대신 로자 초상화로 옮겨진다. 사상모임에서 만난 두 남녀는 바실리사에 대해 대화를 나눈다. 능금을 건네주며 유혹하는 나오미는 뛰는 피와 감정에 순종하는 바실리사의 행동을 찬미하며, 사상을 내세우는 것은 방패에 지나지 않기에 근본은 감정 제일 사업 제이의 자세라고 주장한다. 다가올 혁명과 메시아의 미래 시간보다는 현재적이고 세속적인 현실에 인간은 지배받기에 남녀간의 사랑에 주목하는 것이다.

<주리아>에서는 콜론타이 사상에 대한 토론이 좀더 구체적이고 비중 있게 다뤄진다. 정혼자(전통), 동거남(사상), 불륜남(욕망) 사이에서 고민하는 주리아는 동지의 애인 민호와 일탈하면서 콜론타이가 주창하는 자유의지에 기초한 자유연애를 실천한다. 그러나 옥살이 하는 남편을 일편단심 뒷바라지 하는 차점주인 한라와 비교하며 자신의 불륜에 회의하고 비밀을 간직하며 성장의례를 끝낸다. 존경과 사모의 대상인 주화를 사랑하면서도 민호와 관계를 맺은 주리아는 영어(囹圄)의 몸인 남편만을 바라보는 한라의 순진한 열정과 한 조각의 붉은 마음을 지켜보며 자신의 태도에 괴로워한다. 로자 전기와 콜론타이의 <붉은 사랑>을 읽고 모방하는 그녀의 자유연애 실천은 질투와 고통, 배반의 대가를 치르게 되며 사랑과 계급성이 분

리될 수 없음을 깨닫는다.

“새삼스럽게 「붉은 사랑」은-.” 하고 주리야를 바라보았다. “별안간 보고 싶어서.” “한라는 콜론타이즘을 어떻게 생각허우.” “콜론타이즘-성생활에 관한 지도요 이단이지. 결코 새로운 성도덕의 수립이 아니야. 나는 적어도 그렇게 생각해.” “그러면 가령 바실리사의 행동은-.” “음탕한 계집의 난잡한 행동에 지나지 못하지.” “굳건한 투사적 공로는 어떻게 허구.” “투사적 공로는 공로요 사랑은 사랑이지. 그와 이와는 아무 관련도 없는 것야. 주의는 양심에서 나온 것이고 사랑은 감각에서 나온 것인데 그 사랑의 감각을 주의의 양심으로 카무플라주하라고 한 곳에 바실리사의 무리가 있지 않을까.” “즉 문란한 애욕을 감추라고 주의를 내세웠단 말이지.” “반드시 그렇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주의의 그늘에 숨어서 애욕을 난용한 것은 어떨까 생각해. 애욕 생활이 어지러운 이상 그것은 동물적 면에 지나지 못하는 것을 어졌한 주의의 간판으로 둘러 가리우는 것은 약고 감사한 것야. 바실리사는 결국 굳건한 투사였는지 모르나 반면에 음탕한 동물이지 무어야.”²⁷⁾

성억압 이데올로기, 부르주아적 가족제도가 해체되지 않는 한 진정한 혁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콜론타이는 관습이나 체제와 맞서 싸우며 자신의 성적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종속이나 억압 없는 동지적 사랑을 추구하는 신여성상을 제시했다. 집에서 강제로 맺어주는 전통결혼을 피해 사상적 스승이자 동지인 주화와 자발적으로 동거한 주리야는 소설과 전기에 등장하는 여성을 흉내내며 자유분방한 연애를 추구했지만 자신이 단순하고 음탕한 동물일 뿐이라고 자책한다. 급진적인 성의식을 실현하기에는 너무도 봉건적인 식민지조선사회에서 주리야는 제대로 된 주의자도 모던 길도 되지 못하고 귀향한다.

<수난>에서는 혁명가의 위선과 허위, 한 여성을 대하는 반여성주의적 태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여러 남성들의 풍문과 중상모략으로 희생당한 유라의 부고 소식을 들은 ‘나’는 소설창작 동기가 혁명의 위선과 성불평

27) 이효석, <주리야>(신여성, 33.3-34.3), 이효석문학재단 엮음, 앞의 책, pp.354-355.

등을 고발하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그가 받은 수난의 한 토막을 기록하려는 것이 이 소설의 목적이나 세상에는 부당한 수난-더구나 여자인 까닭으로 이유 없이 받는 당치 않는 수난이 많은 것 같다. 자유의 행동에 공연히 비난과 구속을 받게 되고 그러므로 마음의 자유를 충분히 표현하지 못하고 빛나야 할 모처럼의 생활을 가엾게 말하지 않으면 안될 경우가 있는 듯하다. 더구나 연애의 행동에 있어서의 이러한 부당한 수난의 희생은 심히 가엾은 것이다. 유라의 꼴이 한없이 측은하다. 나는 부당한 수난에 항의하려는 것이다.²⁸⁾

잡지사 편집실에 근무하는 유라는 직장동료 A, B, C, D, E로부터 고백을 받으며 자신이 쌀쌀하거나 냉정한 태도를 취할 때마다 남성들로 인해 몸과 영혼을 훼손한다. 추근거리고 귀찮게 하며 일방적인 구애와 그녀를 ‘지도’하고 간섭하려는 남성들의 욕망은 거절당하고 좌절될 때 비열하고 무책임한 행동으로 여성을 파멸시키고 죽음에 이르게 한다. 투사였던 B와 D뿐만 아니라 F, G, H 등의 남성들이 나타날 것이며 여성들은 성적으로 타자화되는 욕망의 대상일 뿐이다. 가정풍파를 겪은 중년의 신사이자 과거의 빛나는 투사인 B와 그의 옛동지이자 운동의 전선에서 있었던 D의 싸움은 혁명의 타락과 유라를 사이에 두고 여성을 대상화하고 타자화한다. 한 때는 세상을 변혁하기 위해 혁명의 최전선에 있던 주의자가 질투와 소유욕망의 최전선에서 이기적이고 무책임하게 동지와 난투극을 벌이며 죄없는 여성을 중상모략하여 자살에 이르게 하는 상황을 통해 방향성과 분별력을 상실한 카프 해산 이후의 전향과 후일담적 삶을 보여준다. 이 시기는 사회주의 페미니즘에 기초한 콜론타이즘이 성행해 여성의식이 높아졌으며, 이를 실천한 주의자 여성은 가부장적 전통적 벽에 부딪혀 수난을 겪었다. 주의자 남성 또한 혁명과 사상의 전면금지 속에서 전향하거나 세태 속 위선

28) 이효석, <수난>(중앙, 34.12), 이효석문학재단 엮음, 앞의 책, p.453.

과 허위를 드러내며 위축되었다.

V. 결론

본고는 초기 동반자문학에서 성과 애욕으로 전환했던 사이인 1931년에서 1934년까지 발표된 이효석 소설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이 시기는 카프 제1,2차 검거 사건으로 인한 사상의 통제와 만주사변 등 전방기지화한 무단공포정치가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크시즘, 콜론타이, 프롤레타리아, 「자본론」, 경제학저서, <붉은 사랑>과 같은 사회주의 용어가 직접적으로 명시되며 주의자, 엥겔스 걸, 투사, 맑스 걸, 마르크시스트 등의 작중인물이 등장한다. 이 시기의 젊은이들은 사상연구모임을 통해 의식화하고 뼈라를 뿌리는 활동이 열정적으로 이루어졌고 계급타파와 성평등을 추창했다. 주의자의 성, 사랑, 동거로서의 붉은 사랑과 붉은 혁명으로 표상되는 붉은색은 정치적 좌파 즉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와 혁명의 피를 상징하면서 동시에 여성의 성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기에 양가적이고 중층적 의미를 띠었다. 1930년대 전반기 경성은 불온한 혁명과 찬란한 모더니티의 양면성이 공존하는바, 좁고 어두운 뒷골목과 고개에서 뼈라 뿌리고 감금되고 감시받는 삶과 넓고 찬란한 거리에 즐비한 백화점, 상점, 과자점, 아파트에서의 쾌락과 관능, 모던과 에로그로가 이루어지는 일상을 공간적으로 분할했으며 마르크시즘과 더불어 콜론타이즘 논쟁에서 나타나는 혁명의 위선과 성불평등을 통한 젠더문제를 고발했다. 무지와 야만의 전근대와 타락과 욕망의 근대를 모두 비판한 작가는 메시아적이고 혁명적인 이념의 세계로 표상되는 ‘오리온’과 현재적이고 일상적인 ‘능금’으로서의 ‘마르크스’와 ‘여성’을 통해 인간 본성과 생존전략으로서의 코나투스

성찰하였다. 이 시기가 뼈라 뿌리는 시대, 과업의 시대, 붉은 혁명의 시대이자 황금광시대, 연애시대임을 포착한 이효석은 이성과 이념 못지않게 인간의식에 작동하는 식(食)과 색(色)의 일상적 요소를 섬세하고 세련되게 드러냈다. 제목의 상징성, 색채미학, 의식의 흐름, 공간대비 등의 심리적 낭만적 리얼리즘 기법은 이효석 문학이 카프문학과 차별화되는 지점이다. 1930년대 전반기에 발표된 이효석 소설에서 마르크시즘은 사상 자체와 당대 현실의 사회적 모순을 재현하는데 그치지 않고 실존과 인간본성을 해부하는 수단으로 전유 혹은 차용되었다. 1930년대 전반기 이효석 소설은 혁명성과 근대성과 일상성이 혼재된 식민지근대도시 경성을 현실인식과 미학적 표현으로 재현함으로써 당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의 붉은 사랑과 혁명을 리얼하고 객관적으로 보여주었다.

【참고문헌】

1. 1차 자료

- 이효석, 〈오후의 해조〉, 신흥 5호, 1931.7.
이효석, 〈프렐류드〉, 동광 28-30호, 1931.12-32.2.
이효석, 〈오리온과 능금〉, 삼천리 4권 3호, 1932.3.
이효석, 〈주리아〉, 신여성 34호, 1933.3-34.3.
이효석, 〈수난〉, 중앙 14호, 1934.12.

2. 논문

- 김용덕, 「경성제국대학의 교육과 조선인학생」, 『한일공동연구총서』제5집,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2007, pp.129-148.
배상미, 「식민지 조선에서의 콜론타이 논의의 수용과 그 의미」, 『여성문학연구』제33집, 한국여성문학학회, 2014, pp.1-32.
서정자, 「콜론타이즘의 이입과 신여성기획」, 『여성문학연구』제12집, 한국여성문학학회, 2004, pp.7-35.
신주백, 「1930년대 초중반 조선학 학술장의 재구성 과 관련된 시론적 탐색」, 『역사문제연구』제26집, 역사문제연구소, 2011, pp.85-109.
이미림, 「이효석의 북국 삼부작」, 『한중인문학연구』제50집, 한중인문학회, 2016, pp.105-127.
이정희, 「알렉산드라 콜론타이(1872-1952)의 사회주의 여성해방 사상」, 『서양사론』제99집, 한국서양사학회, 2008, pp.103-141.
이현주, 「1920년대 후반 식민지 문학에 나타난 ‘북국’ 표상 연구」, 『우리문학연구』제44집, 우리문학회, 2014, pp.657-702.
조명기, 「이효석 소설의 변화양상 연구」, 『현대소설연구』제23집, 한국현대소설학회, 2004, pp.227-246.
조명기, 「이효석의 맑시즘 비판 논리와 원죄의식」, 『우리말글』제31집, 우리말글학회, 2004, pp.227-245.
한민주, 「이효석의 전향소설에 나타난 신체의 정치학 연구」, 『한국근대문학연구』제3집, 한국근대문학회, 2002, pp.164-194.

3. 단행본

- 권보드래, 『연애의 시대』, 현실문화연구, 2003.
- 김수행, 『자본론 공부』, 돌베개, 2014.
- 김인옥, 『한국현대전향소설연구』, 국학자료원, 2002.
- 이수영, 『에티카, 자유와 긍정의 철학』, 오월의봄, 2013.
- 이철, 『경성을 뒤흔든 11가지 연애사건』, 다산초당, 2008.
- 정진석 편, 『일제강점기 금지도서 목록』, 소명출판, 2014.
- 정진희 엮음,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여성해방론』, 책갈피, 2015.
- 개빈 에번스, 강미경 역, 『컬러 인문학』, 김영사, 2018.
- 멜리사 그레그/그레고리 시그위스, 최성희 외역, 『정동이론』, 갈무리, 2015.
- 알렉산드라 콜론타이, 이현애/정호영 역, 『위대한 사랑』, 노사과연, 2013.
- 알렉산드라 콜론타이, 정호영 역, 『붉은 사랑』, 노사과연, 2013.
- 알렉산드라 콜론타이/블라디미르 일리치 레닌, 서의윤 역, 『콜론타이의 여성문제의 사회적 기초, 세계 여성의 날』, 줍쌀한알, 2018.
- 에밀 뒤르켐, 황보중우 역, 『자살론』, 청아출판사, 2008.

Abstract

A Study With a Focus on the Appreciation Patterns of Marxism on Lee Hyo-Seok's Literature in the Former Half of the 1930s

Lee, Mi-rim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social atmosphere of the former half of the 1930s through the appreciation patterns of Marxism and Kollontatism and the extinction process of ideas in Lee Hyo-seok's literature. Starting with the companion literature, Lee graduated from Gyeongseong Imperial University in English Literature. He shared Marxism that swept over the globe with a Japanese professor and his close friend Yu Jin-o and was under the ideological influence of the professor's education and his friendship with Yu. In the 1920s and 1930s, intellectual youth in colonized Joseon found a means for their independent movement in Marxist ideas and accepted it from a post-colonial perspective to deconstruct the empire and colony. Even though he did not join the KAPF, he was called a companion writer. His early works captured the miserable and low state of colonized Joseon and depicted Vladivostok, a political place of exile, as a utopia where Marxism of joy, deep impression, and happiness was realized. An event occurred which suppressed the Joseon Communist Party in the middle 1920s. In 1931, the first round of arrests occurred for the KAPF. As the brutal and bloody military government was in place, a process of conversion was formed of escaping from ideas and ideologies and burying oneself in sex, nature, and social conditions. Lee's novels of 1931-1934 present a constant stream of ideologists, Marxist ladies, and Engels girls, showing that the period embodied the coexistence of the Gold Rush era and the dating era as well as the era of leaflets, strikes, and red revolutions. Lee adopted romantic and psychological realism techniques including the enumeration of similar words, depiction of contrasting spaces

and senses, flow of consciousness, color aesthetics, and other experimental techniques. They are parts of the characteristics of his literature, which discussed the dark thematic consciousness of the rebellious society under observation by escaping censorship and emerged from the KAPF literature's ideological strictness and dichotomous thinking. During the period, Lee expressed the journey of modern people, with anxiety and thoughts between ideas and instincts, between reason and sense, and between duty and pleasure, in his unique sentiment, colors, and images represented by depression, darkness, splendor, and radiance. Focusing on Lee's literature between his companion literature in the middle 1920s and his *The Pig* in 1933, this study examined how Marxist ideas were embodied in his works in the era characterized by the greatest suppression and terror of the ruling Japanese, the specific presentation of such terms as Marx, Kollontai, proletariat, fighter, and capitalism, and the most passionate and fierce appearance of ambivalent elements including the red revolution and the red love between ideologist men and Marxist women. During the period, Lee dissected sharply the survival strategies of ideologists to preserve their human nature and life force through their sex, love, and cohabitation.

Key Word : Marx, ideologist, red revolution, red love, 식(食)과 색(色)(food and color), conversion, Kollontatism

이미림

소속 : 강릉원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전자우편 : milim@gwnu.ac.kr

이 논문은 2020년 02월 10일 투고되어
2020년 03월 06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20년 03월 11일 게재 확정됨.

